

# 티베리우스 라타 박사, 구약신학, 6차 세션, 왕으로서의 신

© 2024 Tiberius Rata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구약 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티베리우스 라타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6, 왕으로서의 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왕으로서의 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은 자신을 창조주로 나타내십니다. 그는 자신을 언약을 만들고  
언약을 지키는 신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는 자신을 그의 백성의 구속자로  
나타내십니다.

그는 자신을 입법자로 드러낸다. 하지만 그는 또한 자신을 왕으로  
드러낸다. 이제, 히브리어로 왕 또는 말락이라는 단어는 셈족의  
사교방식에 매우 기본적이다.

모든 셈족은 신을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기서 우리는  
왕이 신이고 신이 왕이라는 생각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대 근동의  
다른 민족 집단과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야훼를 왕으로 말할 때는 다릅니다. 이 용어는 단순히 군주 국가의  
수장 이상을 의미합니다. 왕자나 지도자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성경에 대해 이야기할 때, 왕이라는 용어는  
구약성경에서 야훼에게 42번이나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야훼의 왕권은 모든 시대에 걸쳐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행한 그의 주권적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이 신권정치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이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테오스, 즉 신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나중에,  
당연히, 그들은 군주국이 되었습니다.

언약 공식에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이 종주권 조약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신이 언약을 맺을 때, 그는 종주권자의 관점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언약을 맺는 신이 아니라, 실제로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창세기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따라서 야훼의 왕권은 과거, 현재, 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야훼가 왕이 아니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신이 왕이라는 이 관념이 축제 때 왕위에 오르고 왕을 신으로 왕위에 올리던 다른 나라에서 따온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에서 따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훼가 왕이 아니었던 적은 없습니다.

시편은 그것에 대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출애굽기 사건 이후 출애굽기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14장에서 발생하지만 모세의 노래에서 그는 "나는 주님께 노래하리니 이는 그가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음이니라"로 시작합니다.

그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그는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이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는 그를 찬양하고,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

주님은 말씀의 사람이시며, 주님은 그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18절, 주님은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훼의 왕권은 다시 시작이나 끝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7편에서 주님은 영원히 통치하시며, 심판을 위해 그의 보좌를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101:6, 주님은 영원무궁토록 왕이시며,

민족들은 그의 땅에서 멸망할 것입니다. 시편 93편, 주님은 통치하시며, 그는 위엄으로 옷을 입으셨습니다.

시편 96편은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서 통치하신다고 말합니다. 97편, 주께서 통치하시니 땅이 기뻐하고 먼 해안이 즐거워하라. 주께서 통치하시니 민족들이 떨며, 그는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니 땅이 진동하리라.

이것은 라기스 부조입니다. 우리는 왕좌에 앉은 센나케립을 봅니다. 그는 12명의 남자에게 지지받고 있으며, 그는 발을 엮을 발판이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시편에도 나타나는데, 왕이 발을 위한 발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46, 10, 주님은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십니다. 역대상 16, 주님은 통치하십니다.

선지자들에서도 우리는 스가랴 49장을 보고, 주님이 온 땅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말하는 종말론적 구절입니다. 그 날에는 한 분의 주님이 계시고, 그의 이름은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구약성서에서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매우 명확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질문은,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입니다. 글쎄요, 왕국이 있다면, 그것은 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왕이 있다면,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왕으로서 시작과 끝이 없는 것처럼, 이 왕국에도 경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왕국은 보편적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말할 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왕이심을 더 잘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왕국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지만,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가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서도 우리는 같은 생각을 봅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는 마지막 때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가족을 포함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레미야가 같은 말을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보편적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주님의 보좌라고 부를 것이고,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공경할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악한 마음의 완고함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스가랴 8장, 다시 말해서 유배 이후의 선지자. 전능하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보편적이며 땅의 모든 족속을 포함한다.

하나님 왕국의 의는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깨끗이 하여 그들의 의가 그들의 특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교회에 가서 그 노래를 부릅니다. 있는 그대로 오세요. 그리고 때때로,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상태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렇죠, 있는 그대로 오세요.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께 오면, 그분은 당신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일로, 당신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올 때, 그는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그는 당신을 어둠의 왕국에서 옮겨서 그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깨끗이 하시기 때문에 변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로움이 그들의 주요 특징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그리고 너희의 모든 불순함을 제거하라. 나는 옛날에 너희 재판관들을, 처음에 너희 조연자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 후에 너는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성읍이라 불릴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타락한 성읍을 취하여 의의 성읍으로 만들 수 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같은 말씀을 하신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살 것이다. 이것이 네가 불릴 이름이다. 주님은 우리의 의로움이시다.

우리는 새 언약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새 언약이 어떻게 우리 마음 속에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시나요? 그것은 영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에제키엘서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깨끗한 물을 뿌려 너희가 깨끗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모든 더러움과 모든 우상에서 깨끗이 씻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나는 너희에게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다.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다른 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어 하나님의 왕국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주요 특징은 무엇일까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왕국에 들어올 때, 그는 당신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성화라고 불리는 이 과정을 시작합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것은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긴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왕국의 핵심 특징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보편적이며,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로움이 그 주요 특징입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왕국이 평화로 특징지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평화는 때때로 전쟁의 부재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사야는 종말론적 시간에 대해 말합니다. 다시, 그들의 칼이 보습이 되고 그들의 창이 가지치기용 갈고리가 될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훈련하지 아니하리라.

글쎄요, 당연히 우리는 역사상 평화의 시기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무렵에 일어날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는 동물 왕국의 평화에 대해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늑대는 어린 양과 함께 살 것이고, 표범은 염소와 함께 누울 것입니다.

송아지, 사자, 1살 된 짐승, 어린아이가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암소는 곰과 함께 먹을 것이고, 어린아이들은 함께 누울 것이고, 사자는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글쎄요, 분명히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무렵에 성취될 것을 기대합니다. 낙원과 같은 시대가 돌아옵니다. 호세아가 기록한 대로, 그날에 산들은 새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언덕들은 젖을 흘릴 것입니다.

유다의 모든 까마귀가 물을 가지고 달릴 것이다. 주님의 집에서 분수가 흘러나와 아카시아 골짜기를 적실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이라면 메시아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스칸디나비아 학자 모원켈은 메시아가 야훼의 왕국에서 야훼를 대표하며 야훼는 그 안에 현존하고 그를 통해 행동한다고 말한다.

이제, 때때로, 이 메시아는 반드시 예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부음받은 자, 예를 들어 다윗 왕을 지칭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의 신약성경 부분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왕국도 현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 그는 선포하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왔다 ;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는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조차도 그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올려놓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하고 있던 일은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보편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요한은 비문이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로 쓰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왕이었고, 그는 처음부터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릅니다. 다시 말하지만, 왕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좋아요, 여기 로마인을 물리칠 총사령관이 있고, 그는 그들과 싸울 것이고, 우리는 해방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것은 내가 그런 종류의 왕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요한이 물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눈먼 자가 보고, 절름발이가 걷고,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고, 나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징조를 외적으로 보지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징조를 내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으로 오지 않는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보기를 기대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왕국의 미래에 대한 요소도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당신의 왕국이 임하옵소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다면 왕국이 여기 있는가 아닌가? 글썄요, 예수에 따르면, 왕국은 여기 있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에서 발전된 이미/아직 아님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네, 예수가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 당신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이미 거기에 있지만, 아직 여기 없는 왕국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당신의 왕국이 임하옵소서 .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있는 "주 예수님께 오소서"라고요. 글썄요, 그게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왕국의 성취가 여기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일어날 잔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결혼 잔치가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큰 파티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왕국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는 때때로 이 잔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많은 사람이 동서에서 와서 하늘 왕국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잔치에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왕국의 주체는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며, 그곳에서 울부짖고 이를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는 것처럼, 다시 한번 잔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보편주의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보편적 왕국이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별개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라는 분명한 표시입니다. 왕국의 주제는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며, 그곳에서 울부짖고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지옥에 대해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글썄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왕국에 들어갈 길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왕국에 들어갈 길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왕국에 들어갈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권자로 받아들이고 그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임을 압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예수를 구석에 두고, 오, 제발 예수를 주님이자 구세주로 받아들이세요. 아니요, 예수는 주님이고, 예수는 구세주이며, 그는 왕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의 권위에 복종할 것인가 아닌가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그의 왕국의 일부이고, 그는 나의 왕이며, 그는 나의 주님이자 구세주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는 같은 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천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경계가 없는 왕국이며, 하나님이 왕이신 곳이며 하나님이 왕이신 곳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의 권위에 복종할 것인가입니다.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야훼는 왕이고, 신은 왕입니다. 그에게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의 왕국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이것은 구약 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티베리우스 라타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6, 왕으로서의 신입니다.